

보도시점 2025. 6. 27.(금) 09:30 (2025. 6. 27.(금) 석간)

확정급여형(DB)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운용과 관련한 ‘솔선수범’ 당부 및
고객들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 부문 임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부문** 임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사업자들의 DB 운용 현황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확정급여형(DB) 운용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5.6.27.(금) 9:30~10:30,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 ☑ 참석기관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42개사
- ☑ 참석대상 : 자사 DB 및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1 DB형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 균형 있는 운용 필요

2024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며 제도 도입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DB형 퇴직연금이 214.6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 수익률은 4.04%*로 다른 제도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4년도 제도별 연간수익률(%) : DB 4.04 < 확정기여형(DC) 5.18 < IRP 5.86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 받는 구조이므로 수익률 변동이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낮을수록 기업의 적립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는 기업의 재무 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❶DB 가입자인 각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❷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여 적립금을 대부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 '24.12월말 기준 DB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비중 : 93.2%(200조원, 대기성자금 포함)

2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사 DB 운영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DB 제도하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DC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 2개사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 DB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총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자(총 42사)의 88.1%에 해당하는 총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익률(4.37%)도 DB제도 전체 평균 수준(4.04%)에 불과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이자 금융전문가로서 다소 아쉬운 수준이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DB 운용현황(2024년말)

구분 (회사수)	원리금보장형상품 투자비율					합계	90%이상 비율
	70% 미만	70~90%	90~95%	95~100%	100%		
은행	-	2	1	4	6	13	84.6%
증권	1	1	2	3	5	12	83.3%
보험	-	1	2	3	11	17	94.1%
계	1	4	5	10	22	42	88.1%

이러한 가운데, 우수사례로서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DB 적립금을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적극 운용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동사는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부서장을 적립금운용위원으로 선정하고 사내 운용 전문부서를 자문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토대로 대체투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상품에 적립금의 70% 정도를 분산투자하여 최근 6년간 DB형 퇴직연금 평균 대비 2.5%p 이상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3 퇴직연금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당부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자체 DB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술선수범’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금융전문가에 걸맞는 자산배분 계획을 세워서 실적배당형상품에 적극 투자하고, 담당 임직원에게 장기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노력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객(사용자)들에게 체계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금융멘토’로서 기업들의 전략적인 DB운용을 독려해달라고 언급하였다.

4 적립금 운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들이라면

금번 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들의 DB 운용을 자문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업의 미래 퇴직부채 증가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퇴직부채 증가율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수익률 설정을 권고하는 한편,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Peer그룹(동료집단)의 투자현황과 수익률을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면서 고객의 장기 분산투자를 유도한 사례 등을 안내하였다.

적립금 운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이라면 우선 하나은행과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금융전문가의 자산운용에 관한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간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IPS) 실무사례집’(붙임)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정책, 운영성과 평가 체계 등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과 관련하여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간 축적된 모범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 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IPS) 실무사례집*

* 실무사례집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김성현	044-202-7572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이동규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김윤조	02-3145-5190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자문제도 사례

- ☐ **(전문가 구성)** 운용자산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전문성 있는 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리스크관리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
- ☐ **(자문제도 도입)** 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문제도 설치

2.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사례

- ☐ **(심의기능 강화)** 위원회 보좌조직(실무위원회, 사무국 등) 운영, 안전 사전검토 기간(7영업일) 부여, 회의록 보존(10년 이상) 의무화 등

3. IPS 목표수익률 설정 사례

- ☐ **(퇴직부채 수준 고려)**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퇴직부채 결정요소(임금상승률, 부채 할인율 등)를 활용하여 목표수익률 설정

4. IPS 자산배분정책 및 투자위험 관리기준 사례

- ☐ **(기업여건 고려)**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장기 분산투자를 위해 기업 여건(투자자산 운용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방법 활용*
- * ①연금기금 같이 고도화된 전략, ②투자상품 운용경험이 부족할 경우 쉽고 단순한 전략

5. IPS 적정유동성 확보 사례

- ☐ **(단기 유동자금 최소화)** 과도한 유동자금 보유로 운용수익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실제 퇴직급여 지급액(최근 5년간 연평균)에 기반하여 적정 유동자금 산출

6. IPS 운용성과 평가 및 보상 사례

- ☐ **(평가·보상 연계)** 장기(5년)관점의 자금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방법*, 운용상품(원리금 보장/비보장)별 계량화된 평가방법, 임직원 보상정책과 연계
- * 예 : 평가대상 기간별 평가점수의 가중치 차등화(최근 2년 20%, 3년 30%, 5년 50%)

7. 퇴직연금사업자 서비스 사례

- ☐ **(컨설팅 제공 등)** 사업자가 DB기업의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및 수수료 감면정책 등을 제공
- * 예 : 여러 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분산 운용하는 DB기업은 '운용 주간사'를 지정하여 전체 적립금의 운용 성과평가, 자산배분전략 수정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음